마음이 발전이 돼야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옵니다

☞ 19면에서 계속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 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 달라고 '주인공, 해 주시오.' 하고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 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둘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 달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네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 버리는 그런 거는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고 열심히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 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딴 걸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 왔으니, 지금 생각을 한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질문자1(남) 네 번째는 오조 홍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품을 회(懷) 자가 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회(會) 같은 데는 감추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큰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를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구가 대신 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마음에 뿌리와 나뭇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 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겉탕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겉탕으로 모여서 흉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겉탕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니라.' 이런 거거든. 말은 할 줄 몰라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 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죠.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견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예.

질문자2(남)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다가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찾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한 네 살쯤 되었습니다. 그래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 다니면서 놀잖아요.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노는 걸 보면 혼자 있는데 꼭 둘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더랍니다. 아, 이게 뭔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맨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겁니다. 만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야.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그죠? 아,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 듣지 못하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딱 볼 적에는 전부가 나의 화신이요, 보살이라 미리미리 보여 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까?

큰스님 예, 하하하.

질문자2(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난 거하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네가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까?

큰스님 허허.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2(남) 그것도 아닙니까? (대중 웃음) 그래 가지고 쭉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가만히 연관시켜 보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 갑니다, 이제. (대중 웃음)

큰스님 이거 보세요. 앞의 거를 해결을 못 하고, 저 먼 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댁의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십니까?

질문자2(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기 앉아 계셔도요, 우리집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를 아신다니깐 망정이지, 만약에 화해서 자꾸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 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2(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아를 돋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돌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데요.

큰스님 하하하. 예, 참 잘됐습니다.

질문자2(남) 오늘 밧데리 보충 멋들어지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에 그림 한 장 그려 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가시는군요.

질문자3(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스님, 조금만 용기를 좀 주옵소서.

큰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허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 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가는 길이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거를 해 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 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여러분, 모두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살아나가는 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 나가면서, 내 진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 어떻게 다 써 놓겠습니까.
>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8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